e-mail 매거진

포교사 역할 '톡톡'

붓다뉴스등 10여개 발행…무료 서비스

뉴스 · 도서 · 사이트 등 다양한 정보

이메일 매거진으로 부처님 말씀도 듣고 다양한 불교 정보도 접하며 참선 수행도 한다. 인터넷 서핑으로 찾아 다니는 불교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 소식 및 부처님 말씀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는 이메일 매거진이 인기다.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메일 매거진은 이메일을 통해 홈페이지와 같은 양식으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는 신종 미디어로 개인도 얼마든지 손쉽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일간 현대불교 붓다뉴스닷컴(www.buddhanews.com)은 매일 불교계의 다양한 뉴스를 담은 이메일 매거진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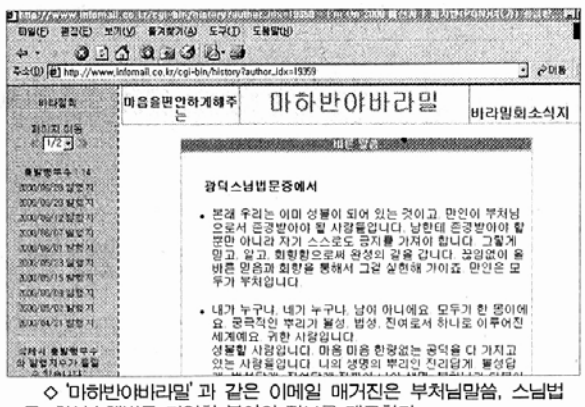
대표적인 이메일 매거진 사이트는 이매그21(www.eMag21.com)과 인포메일(www.infomail.co.kr). 이곳에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매거진 10여개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해 매거진을 신청하면 매주 때론 격주로 부처님 말씀이 담긴 매거진들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메일 매거진만 발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중불교처럼 홈이 있으면서 발행되는 매거진들도 있다.

지난해 7월 발간을 시작한 대중불교는 격주로 불교계 소식, 불교 서적, 불교이야기, 불교 추천사이트 등 각종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불교와 함께 불교교양 강좌도 이메일 매거진으로 발행하고 있다. 역시 격주로 발행되는 불교교양강좌는 불교교리, 불교사, 신앙생활, 경전, 선, 불교문화 등의 강좌형식으로 진행된다. 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 주2회 발행되는 '경 읽는 소리 법 읽는 마음'은 〈불교성전〉에서 발췌한 불경 한구절씩을 보내준다.

참선법 및 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전달하는 〈선나라〉의 '그대, 선을 아시는가!'는 부정기로 발행되는 이메일 매거진으로 화두참구법은 물론 선사들의 선문답 등을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화두선을 중심으로 선의 현대적 의미, 실천 선, 수행공동체 '백두대간', 고금선원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연꽃나라의 불교이야기'는 격주로 조계사 소식 및 불교정보, 부처님 말씀, 조계종 · 태고종 등 종단 소식을 전하고 있다. 태고종 원광사에서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살면서 찾는 불교마당'에서는 한국불교 소식과 더불어 팔만법문 등이 한문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

불교학당에 올려지는 내용을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꾸민 전문 불교 매거진 '불교학당'에는 불교학당 공지사항, 경전 해설, 불자 편팔 소개, 사찰 찾아가는 길 안내 등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알기쉬운 불교'는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등 불교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 '마하반야바라밀'과 같은 이메일 매거진은 부처님말씀, 스님법문, 참선수행법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e-mail 매거진 발행사이트

www.eMag21.com	www.infomail.co.kr
연꽃나라의 불교이야기(http://my.netian.com/~lottus)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불교학당(http://user.chollian.net/~mirrk1)	바라밀회(http://members.tripod.lycos.co.kr/baramil)
알기쉬운 불교(http://my.dreamwiz.com/y2000pch)	살면서 찾는 불교마당(http://user.chollian.net/~w2i2)
연꽃의 향기(http://myhome.cjdream.net/onein)	
대중불교(http://studybud.buddhism.org), 불교 교양강좌(http://studybud.buddhism.org)	
경 읽는 소리 법 읽는 마음, 〈선나라〉 그대 선을 아시는가(http://www.netian.com/~hul000)	

전남대 불교학생회 소식을 전하는 '연꽃의 향기',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인 바라밀회와 같은 동호회 소식지 역할을 하는 이메일 매거진도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윤 수
〈KBS 방송작가〉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어젠 여주 고달사지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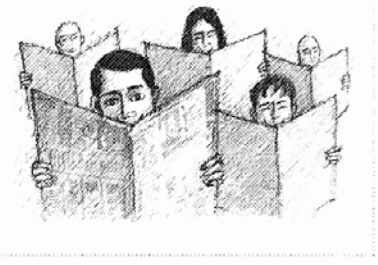
몇해전, 잡초 무성한 고달사지 빈터에서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며 대찰을 그려봤을 당시와 달리 어느덧, 흙빛 속살을 드러낸 발굴 현장 곳곳은 석축과 돌무더기들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더군요. 모나지 않게 돌을 쪼아 축대를 쌓고, 초석을 만들고, 회랑을 만들었을 옛 스님들의 진한 향기가, 그 돌무더기마다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 어느 가람 배치와도 닮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는 발굴단원들 사이를 헤매면서 저 홀로, 금당이 어디쯤일지, 박물관 뜨락에 놓인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어디쯤 자리하고 있던 것일지, 가슴설레이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러진 폐사지에서 이끼 무성한 돌덩이를 매만지며, 이 하나하나의 돌무더기에 숨결을 불어넣었던 이름모를 석공들의 불심도 떠올려 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모습을 찾을 길 없지만, 과연 에도 스님의 자료는 몇장 채 되지 않는 데에 비해 그 목사님 자료는 한무더기였습니다.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는 일간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송국이 생겼을 때 불자들은 집집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면 그날 하루 방송국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고, 정법을 펴는 스님의 가르침이 있는 날은 테잎을 구



힘있는 불교 언제 볼 수 있을까

이처럼 간절하게 드넓은 대찰을 일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기인했던 것일까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폐사지에서 조금씩 흔적을 드러내는 건물터, 부서진 청자 조각들… 그것들을 엮어 사라진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일은 흡사 퍼즐게임을 통해 과거로 떠나는 일과 다름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수한 스님들이 정진하고, 무수한 스님들이 불사를 이루며 추구했을 그 과거의 세계로 떠나면서 단 한줄의 기록도 전하지 않는 현실, 잃어버려 되찾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수호하지 못함에 대한 질책과도 같은…

펼쳐진 고달사 발굴터는 예산 부족으로 다시 덮어진다고 하더군요. 다시 나라 예산이 나오면 그때 이어서 발굴을 할거랍니다.

또다시 무성한 잡초로 뒤덮일 발굴현장에서, 저는 힘없는 오늘의 불교를 맘아프게 보아야 했습니다.

최근 특집방송으로 스님과 목사 한분을 모신 일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스님임에도 스님의 자료는 몇장 채 되지 않는 데에 비해 그 목사님 자료는 한무더기였습니다.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는 일간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송국이 생겼을 때 불자들은 집집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면 그날 하루 방송국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고, 정법을 펴는 스님의 가르침이 있는 날은 테잎을 구하려는 이웃들이 줄지어 서있던 풍경… 꼭 십년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십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황에 시달리던 라디오 방송은 질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일이 예전같지만은 않습니다.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안간힘을 쓰던 불교 텔레비전은, 이제 껍질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천만 불자라고 이야기하고, 불법홍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여겨집니다. 언로가 살아있고, 매체를 통해 소통하지 않는한, 어쩌면 여전히 우리 불교는 근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건축 불사에 매진하는 일 이상 소중한 것은 불교 언론을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뿌리 깊게 내려 무성한 잎을 피워내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의지처가 돼줄 우리 언론을 되살려내는 일… 주간 신문들이 활력을 얻어 일간지로 거듭나고 불교방송도 활성화돼서 불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은 각박한 세상, 방황하는 이웃들 곁에 진정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기도 · 연등공양 사이버 절로 오세요"

WWW. dosolchun.com개설…스님 상담도

사이버 사찰 도솔천(http://www.dosolchun.com)에 가서 부처님을 향한 발원 내용을 적고 기도를 올려보자.

'마음으로 열어가는 세상'을 표방하고 나선 사이버 사찰 도솔천에서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기도 뿐만 아니라 연등 공양을 올릴 수도 있다. 사찰에서나 할 수 있었던 기도, 연등 공양 등을 대거 사이버상에 구현한 것이 도솔천의 특징이다.

연등 공양 코너에서 출생년도와 소원하는 등을 선택하면 1년간 무료로 축원을 해준다. 불전함도 구비되어 있어 성심껏 마음을 낼 수 있다.

스님과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는 스님 코너를 클릭하면 불교에 대한 의문이나 생활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죽비'는 스님들이 직접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열린공간, '내마음을 찾아서'는 사계절이 담긴 사진 · 명상음악과 함께 하는 나만의 명상공간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이젠 울지 않아요'는 영가의 사진 등 추억의 물건을 올려놓는 곳이다.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품목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불자님네 장터'도 마련되어 있다. '바람없이도 우는 풍경'에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행하고 있는 불자들을 알려 고마움을 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가족이나 연인들의 사서함 '가족의 쉼터', 유용한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세상둘러보기' 등도 있다. 나만의 비밀을 담아두는 '종이학'도 독특한 코너. 도솔천에서는 골어귀, 자비마을 등의 동호회도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 깨달음으로 가는 길(http://www.nestor.or.kr)-선화와 더불어 선문답을 싣고 있는 홈페이지. 선사들의 일화 및 삶을 통해 진리를 안내하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 중앙대학교 불교학생회(http://budda.cau.ac.kr)-중앙대학교 불교학생회 홈. 동문회도 개설되어 있다. 기초교리 백문백답 법구경 등 교리 강좌 및 행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 붓다포토(http://www.buddhaphoto.co.kr/buddhaphoto)-다보사 주지 지암스님의 불교 관련 사진 사이트. 회원등록을 해야 사진을 볼 수 있다. 김도형, 김태환, 박정자, 배재민, 이종봉, 정승렬 등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금산사(http://www.kumsansa.net)-6월23일 개설. 금산사 가상체험은 물론 성보박물관 안내, 기초 교리 강좌 등을 볼 수 있다. 영문 페이지도 준비하고 있다.

■ 기초불교(http://buddha.hihome.com)-초전법륜, 사성제, 불교용어, 육바라밀, 반야심경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실에는 삼귀의, 청법가, 보현행원 등의 찬불가를 직접 들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풍경소리 회보 창간

역-사찰 결연도 추진

지하철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가 6월 15일 회보를 창간했다.

성운스님은 "풍경소리가 지하철 포교활동을 시작한지 9개월"이라며 "'자비의 말씀' 한장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회보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회보에는 다시보는 자비의 말씀, 함께 읽는 페이지, 풍경소리 소식 등이 담겨있다. 풍경소리는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풍경소리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와 관련해 각 역과 인근 사찰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02) 736-5583

석불硏 광주군 석불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9일 경기도 광주군 일대로 석불 친견 순례법회를 떠난다. 오전 8시 이대부속병원 응급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회비는 2만5천원,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광주군 일대에는 유정리 좌불상 등의 석불들이 남아 있다. (02) 760-5171

한편 12일 오후6시에는 삼청동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이날 발표는 신은정 회원이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다. (02) 760-5138

지하철법우회 법당신축

서울지하철법우회는 6월27일 2호선 종합운동장 역 대합실에 가건물 형태로 설치된 법당에서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를 마지막으로 법우회는 법당을 폐쇄하고 가건물 형태의 법당을 확장 신축하는 불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선문을 배부하는 등 3천만원의 예산 마련에 분주하다.

정기법회는 9월 완공될 새 법당에서 다시 봉행할 방침이다.

구로승무사무소 성지순례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6월27일 구미 금오산 해운사로 사찰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직지사 말사인 해운사는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절 뒤편으로 도선국사가 머물렀다는 도선굴이 있다.

한전 반야회 실상사 순례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6월24일~25일 지리산 실상사 황대선원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41명의 회원이 동참해 서로의 신심을 다졌다.

한전 반야회는 매주 정기법회 외에 봉은사 원광스님과 함께 한달에 한번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강좌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2000
수덕사 선 실천 수련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21세기입니다.
지난 세기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 왔지만
정신적인 빈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이제 새로운 사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선'입니다.
선은 인류평화와 행복의 지름길로 향도하는 이치입니다.
한국 근대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덕수총림 수덕사에서는
〈〈2000 수덕사 선 실천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안정과 평화,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일 시 · 1차 수련회 - 7월 22일 ~ 7월 25일(토~화, 음 6월 21일 ~ 6월 24일)
· 2차 수련회 - 7월 27일 ~ 7월 30일(목~일, 음 6월 26일 ~ 6월 29일)

장 소 수덕사 황하정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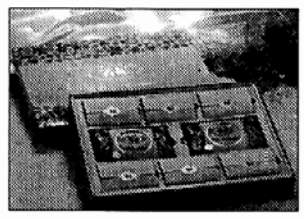
◆참가자격 : 선에 관심있는 일반인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 복장, 운동화, 세면도구, 침구
◆수련회비 : 50,000원
◆접수방법 : 선착순 100명한도 - 방문, 전화, FAX, 우편접수
◆문 의 처 : 수덕사 종무소 전화 041)337-6565, FAX 041)337-0072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법장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딩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